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상충하는 이해관계

구미야 센터

1968년 베네수엘라 예수회가 주축이 되어 만든 연구와 사회운동을 위한 단체

중국은 세계 각국과 활발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경제 관계는 투자와 외교 관계를 통해서 점점 더 다양한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확대되었고, 라틴아메리카와도 안정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이러한 관계를 연구했으며, 국제무대에서 양측 관계가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이 문제를 다루는 연구소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많은 국가는 중국의 성장 속에서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중국은 중국대로 각국과 협상을 통해 무엇보다도 자국이 탄탄하게 성장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 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요약하고, 양측 중 누가 더 큰 이익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또 그러한 기대치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체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무역은 증가하는 추세였고,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안정적인 관계로 접어들었지만 이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활발한 국가인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쿠바, 베네수엘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남미의 리더이자 메르코수르(MERCOSUR)와 남미국가연합(UNASUR)의 핵심 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시아 상품이 집결하는 이상적인 장소가 되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61%를 차지해 미국 다음으로 2위였고(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1), 대중국 수출은 12.49%로 1위다. 포사다 카노가 말한 것처럼 브라질은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에 경제적·정치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Posada Cano 2011).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남미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이라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은 남미의 강대국으로서 직접적으로 힘을 드러내지는 않고 담론 차원에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용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하는 브라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두 멤버인 미국과 중국의 이익을 두고 저울질하며, 상임이사국 자리를 얻기 위해 유엔을 개혁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안데스 지역 국가를 보면 여러 이유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약간 다르다. 우선 페루는 아시아 국가들과 가장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대중국 수출과 수입 비율은 각각 15%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의 균형이 곧 무역수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페루는 미국과도 이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 페루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페루의 가장 중요한 수출입국이 되었고, 북미와 남미 간의 무역이 강화되었다.

콜롬비아는 미국의 가장 주요한 군사·경제 동맹국이다. 하지만 경쟁과 다변화로 인해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고, 중국과의 무역도 증가하였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콜롬비아의 세 번째 주요 수출국이 되었다. 콜롬비아 수출의 5.2%, 수입의 13.4%를 중국이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과 콜롬비아의 이런 관

계는 미 의회에서 미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의 통과 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¹⁾ 이에 중국은 중앙아메리카가 아니라 콜롬비아에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철로를 건설해 제품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통신과 교통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²⁾ 이 철도는 남미의 여러 제품을 콜롬비아로 운송하고, 콜롬비아에서 태평양을 통해 중국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BBC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76억 달러의 투자금이 필요하며, 이미 사전 협의가 진행되어 두 국가수반의 승인 절차만 남았다.

칠레의 경우,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6.46%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한다. 칠레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2.76%로 미국 다음으로 2위이며, 이는 칠레가 구리와 같이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칠레와 유사해 아르헨티나 수입에서 중국은 10.26%로 브라질, 미국, 칠레 다음으로 네 번째이며, 수출은 9.26%로 2위를 차지한다. 중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는 호혜적 편익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아르헨티나가 중국 제품을 700억 위안(미화 100억 달러)까지 신용 거래로 구입할 수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아시아·아르헨티나 연구소 소장인 구스타보 히라도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 방법을 사용한 적은 없다.

베네수엘라는 에너지와 같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중국 정부의 영향하에 있는 중국국영석유회사(CNPC)는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원유 매장량이 많고 중질유(重質油), 특중질유, 역청이 풍부한 오리노코 석유벨트에서도 작업하고 있다. 양국 협정은 에너지 분야

1) 콜롬비아-미국 FTA는 2011년 10월 10일 미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2012년 5월 15일 발효되었다 — 옮긴이.

2) 중국이 투자해 콜롬비아 우라바에서 쿠파카를 잇는 220킬로미터의 철로 건설 계획을 가리킨다. 2011년 초반 중국과 콜롬비아 정부 사이에 상당 수준의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 옮긴이.

에 집중되어 있지만 산업과 철도 인프라, 주택, 원거리통신과 같은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양국은 쌍방이 출자한 기금을 통해 신용 결제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중에는 ‘베네수엘라 - 중국 합작기금’과 ‘장기 융자’가 있다.³⁾ 이 두 가지는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체결한 협정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베네수엘라가 정해진 기한 안에 원유를 보내서 중국에 대한 채무를 지불한다는 것인데, 모든 사항이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출금 이자 등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쿠바와 중국의 관계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강화되어왔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쿠바의 대 중국 수출은 4억 3,220만 페소에서 15억 6,940만 페소로 늘어났고(2007년 쿠바통계연감 공식 자료 참고, Díaz Vázquez 2008), 동일한 기간에 쿠바의 중국 제품 수입은 1999년 3억 8,250만 페소에서 2006년 13억 2,370만 페소로 증가했다. 수출은 275%, 수입은 300% 이상 늘었다. 중국은 쿠바의 두 번째 수입국이며, 베네수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는 융자 제도가 있다. 이러한 신용 거래는 원거리통신(텔레비전과 휴대폰 등), 양국 합작 기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의 개발, 과학 기술 협력, 농업 생산 관련 프로젝트, 문화 관광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의 등장과 영향력 있는 국가의 부상은 중국의 경제적 행태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요인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 모델을,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최근 30년 동안 놀랄 정도로 무역역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3) 두 가지 모두 베네수엘라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위해 중국개발은행과 베네수엘라의 ‘독자적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FONDEN)’이 함께 마련한 중국 기금의 일환이다 - 옮김이.

중국의 주요 무역국은 아시아와 태평양의 이웃 국가로, 특히 일본과 아세안(ASEAN) 국가다. 이들 국가 전체로 보면 수입의 56%, 수출의 45%를 중국이 차지한다. 아시아를 제외한 무역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은 세계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각축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미 관계의 본질적인 측면 중 하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가 고려된다는 점이다.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전략상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뒷뜰로 간주되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라틴아메리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국에 도전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공고히 하고, 국가적 이익의 일환으로 타이완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 연구에서 미국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가지는 세계적인 중요성,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갖는 중요성 때문이며, 그래서 중국-라틴아메리카-미국이 만드는 삼각 구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소련의 붕괴 이후, 국제무대에서는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인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권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최근 급속히 성장한 중국은 유럽연합과 함께 미국의 주도권을 끝내려고 하며, 중국이 또 다른 강대국으로 자리 잡는 다극화된 세계를 추구한다. 미국의 중요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라틴아메리카가 중국과 손을 잡고 천연자원(원자재)을 제공하는 등, 남반구 대 남반구의 협력(즉 3세계 국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가 강화된 것은, 이 두 축이 다극화라는 동일한 주파수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중국 경제가 놀라운 성장을 하고, 그로 인해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원자재와 중간재를 직접 찾아다니는 것은 넘쳐나는 중국의 공산품을 팔 새로운 시장을 끊임없이 찾는 것과 더불어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에 관심을 두는 주요 동

기다(Malamud 2007).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는 막대한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국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

2008년 중국 정부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백서'를 발간하여 이 지역에 대한 중국 정책의 일부를 공개하고 그곳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드러냈다. 중국이 성장해온 시기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 정부가 늘어나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고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온 대미 종속에서 탈피하고자 대미 중심의 국제 관계를 다변화하려고 시도한 시기와 일치한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은 위안화를 국제 통화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미래에는 위안화가 달러의 힘을 넘어서거나 적어도 달러로 비축하고 있는 국제 통화의 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스페인의 다국적 은행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BBVA)의⁴⁾ 홍콩 지점 신흥국 담당 수석 경제학자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게레로에 의하면, 이미 크고 작은 라틴아메리카 기업이 위안화로 거래를 하는데, 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의 기업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 국가의 기업은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활용해 자원을 중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추후 평가절상될 위안화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선견지명을 갖고 이 모든 계획을 통제된 방식으로 운용해왔고, 공공연히 위안화를 유엔화하지는 않음으로써 지나친 평가절상을 막았다. 중국은 수출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위안화의 가치를 시장가치보다 낮게 매겼고, 그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BBC의 상하이 특파원이었던 크리스 호그는 중국이 위안화를 얼마나 평가절상할 것인가가 많은 이들의 관심사였다고 전한다.

4) 1988년 빌바오 은행과 비스카야 은행이 합병하여 빌바오 비스카야 은행이 되었고, 1999년에는 다시 아르헨타리아 은행을 합병하여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이 탄생했다 - 옮긴이.

중국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주요 무역국이 되고자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신규 투자, 유리한 대출 조건, 기술 제공, 대규모 공공사업 참여 등을 약속했다. 중국의 투자력을 감안하면 중국은 매력적인 무역 파트너로서 상대 무역국 국민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석유를 제공한 베네수엘라의 경우처럼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에너지원과 원자재 공급을 약속하고 미래의 자국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 가입이 세계 무역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한 중국 전략의 일부라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1년에 국제무역기구의 일원이 된 이후 대(對)라틴아메리카 수입액을 600% 늘리고, 매년 라틴아메리카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함으로써 채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무역량이 10배로 늘었다. 또한 중국은 미주기구의 옵서버국이 되었고, 최근에는 15년간의 협상 끝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주개발은행(BID)의 옵서버국이 되었다. 그 자격으로 중국은 미주개발은행의 출자자로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의 대규모 공사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의 무역이 증가한 것은 명백하다. 1995년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의 12번째 무역국이었고 무역 금액은 56억 유로를 간신히 넘는 정도이던 것이, 2007년에는 이미 두 번째 무역국이 되어 무역량은 13배가 늘고 금액은 700억 유로를 넘었다. 이는 2010년 달성을 목표로 2004년에 세웠던 수치였다 (Ríos 2009).

2011년 초반 국제연합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는 보고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경제와 무역 관계의 새로운 국면'에서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 라틴아메리카와 중국의 무역 규모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1,119.3%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150억 달러에서 1,829억 달러가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역동적인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 미국과 유럽연합은 여전히 라틴아메리카의 1, 2위 무역국이지만 예상대로 중국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2014년에는 중국이 유럽연합을 3위로 밀어내고 2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 2020년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최대 무역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지만, 라틴아메리카의 대미 수출은 2000년 60%, 2010년 38%에서 2020년에는 28.4%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20년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의 전체 수출에서 19.3%를 차지하며 2위가 될 것이며, 유럽연합은 13.6%로 3위가 될 것이다.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의 무역이 이렇게 증가하자 라틴아메리카는 무역 적자를 보았다. 2010년 라틴아메리카의 대중국 수출은 약 710억 달러(2006년 226억 달러), 수입액은 약 1,111억 달러(2006년 491억 달러) 중국이 40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라틴아메리카에서 구입하고, 대신 상품을 팔 수 있는 완벽한 시장을 갖게 된 것이다. 국제연합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의 수치에 의하면 중국이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수입하는 양의 90%는 원자재다. 지금까지 이 글의 전망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중 디아스 바스케스는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에서 부드러운 외교노선이 시장 개방의 동인이며,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둘은 전략적인 연합의 형태를 구성한다고 본다(Díaz Vázquez 2010).

지금까지의 내용은 현재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일부이며, 이 틀에서 미주개발은행은 최고 전문가 그룹을 모아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세계,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미치게 될 전략적인 함의를 분석했다. 그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무역 전략은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며, 중국은 일본

과 대만의 행동이 중국인에게 주는 반감을 교훈 삼아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며 적이 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정학적인 야심이 아시아에서 더 강하게 표출될 것이며, 라틴아메리카에도 존재감이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무역이 증가하고 경제가 다변화될 것이며, 라틴아메리카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중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장기적인 정치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 주는 이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 서두에 제기했던 양자 간의 관계가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각 국가는 이 관계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는가? 거기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 이는 아직 대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다. 정치적으로도 담론적으로도 수십 년간 미국의 뒤흔어졌던 라틴아메리카가 더 이상 미국에 의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고 신중하게 성찰해봐야 한다. 문제는 라틴아메리카가 중국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좋거나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종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라틴아메리카가 원하는 것이 단지 미국의 뒤흔어지지 않거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중국의 성장을 지지함으로써 우리 집의 주인은 바뀌겠지만 우리는 계속 뒤흔어질 취급을 받을 것이다. 반면 우리가 중국이 신경경제국이 되는 것을 돕는다면, 그것은 중국의 목표와 일치한다. 왜냐하면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들에 의하면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매년 10% 가까이 성장해왔고, 그 결과 2005년에는 프랑스와 영국을 능가해 세계 경제 4위, 2007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3위,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2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 속도가 지속된다면 2025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될 것이며, 신경경제국이 될 것이다.

이 글의 핵심 결론은, 극단적인 선택은 모두 나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는 것이다. 때때로 이데올로기적인 판단에 의해 국가 이익보다 우호적인 동맹국의 자원 확보가 더 우선시되기도 하지만 무정부 상태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 정치 시스템에서는 그런 우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의미의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_ 정승희 옮김

원제와 출처

Centro Gumilla. 2011.

"China-Latinoamérica: intereses encontrados"

En Análisis de coyuntu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abril-junio 2011. Caracas, 6-10.

참고문헌

-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1. "The World Factbook: Brazil".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r.html>
- Díaz Vázquez, Julio. 2008. *Apuntes sobre las relaciones China-Cuba*.
http://www.politica-china.org/imxd/noticias/doc/1223549311Apuntes_sobre_las_relaciones_China-Cuba.pdf
- Díaz Vázquez, Julio. 2010. *China-América Latina: ¿Relaciones de mutuo beneficio?*
http://www.politica-china.org/imxd/noticias/doc/1290546256Chin-Am_Latina_Diaz_Vazquez.pdf
- Malamud, Carlos. 2007. "China y América Latina: ¿qué esperan los unos de los otros?" *Anuario Asia Pacífico 2006*. Barcelona: CIDOB, Casa Asia y Real Instituto Elcano.
http://www.anuarioasiapacifico.es/pdf/2006/009Carlos_Malamud.pdf
- Posada Cano, Enrique. 2011. "Pesos y contrapesos del ascenso de China." *Revista Análisis Internacional (RAI)* 3: 1-11.
http://www.politicachina.org/imxd/noticias/doc/1300822773_CHINA_ALCANZA_EL_RANGO_DE_POTENCIA.pdf
- Ríos, Xulio. 2009. "China, a la conquista de América Latina," *Le Monde Diplomatique edición en Español*, enero.
http://www.medelu.org/IMG/pdf/CHINA_RIOS_p24.pdf